

국감 돌입... ‘대장동 vs 고발사주’ 격돌

내달 1일부터 3주간...코로나·플랫폼 이슈

대권 지형 직접 영향...여·야 치열한 기싸움

국회가 내달 1일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대령 의혹사건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여야는 저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날을 버리고 있다.

사안의 흐름에 따라선 대권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감으로 치를 떤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총공세를 펴왔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고나와 몰타기 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문헌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

다.

행안위, 국토위, 정부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으로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

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결임 상임위원 윤영위·여가위 국감은 25~27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열린캠프의 김영욱 대장동 TF 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박상도 의원의 퇴직금 50억원 등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김여정 담화 의미있게 평가”

청 “남·북·미 대화 물꼬” 반색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 등 남북 간 현안 논의의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통일부는 26일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도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종전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를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여러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발언과 관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담화 내용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늘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가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표면상의 신중론과 별개로 청와대 물밑에서는 꽤 막혀있던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만간 남북 간 구체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시화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섞인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스케줄 변함 없다”

김 총리, 연말께 ‘먹는 치료제’ 기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엔 “조만간 가닥”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는 2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에도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는 정부의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된 지역민영 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1년 8개월째 협조를 해주는 국민들께 언제까지나 참아달라고 요청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 추석까지 고향 방문을 막을 수 없어 (인원 제한을 완화했는데)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가 계속 들려오니 참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며 “그만큼 코로나의 활동 공간을 좁혀놓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올해 연말께 미국 등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역병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유리한 위치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도 되돌아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과 관련해 “올해 가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이미 덩치가 큰 기관들은 많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

권에 남은 기관들을 추려보니 4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직원 100명 이상인 곳은 150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면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모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 ‘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인 협의체’는 26일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결국 여야 지도부 담판에 맡겨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여론을 수렴했다고 소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강행처리 땐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처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뤘다. /연합뉴스

대결구도 선명...단순정리 장점

어대명(여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무야홍(무조건 야권후보는 홍준표), 홍썩명(홍준표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여의도 정가에서 ‘조어 전쟁’이 치열하다.

입에 오르내리게 쉽게 통상 세글자로 축약어를 만드는데, 대결 구도를 선명하고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레임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일종의 ‘입소문 마케팅’으로, 각 후보 진영뿐만 아니라 열혈 지지층들이 SNS에 실어나르며 확산하는 구조다.

썰렁현상 효과를 통한 ‘대세론 굳히기’에 활용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토론을 부추기는데 역이용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세론을 뜻하는 축약어가 눈에 띈다. ‘어대명’과 더불어 당내 경선용인 ‘어후명’ (여차피 후보는 이재명)이 대표적이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칭하는 ‘무야홍’ 바람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유래해 최근 온라인에서 ‘신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밈(meme·인터넷 유행)을 패러디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최근 ‘유치타’로 통한다. 몸을 움크렸다가 크게 도약하는 치타처럼 지지율이 오를 것이란 의미로, ‘민주당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의미도 내포했다.

경쟁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조어도 눈에 띈다. ‘홍썩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층 일부가 당내 경쟁자인 홍 의원의 상성세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견제성 조어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윤나뎡’ (윤석열이 나오면 뎡류), ‘홍나뎡’ (홍준표가 나오면 뎡류) 등의 평가절하성 키워드도 회자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빠진 사이다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제대로 못 잡는다”라며 ‘심잡홍’ (심상정이 잡는 다 홍준표)을 내세웠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조어 전쟁은 치열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